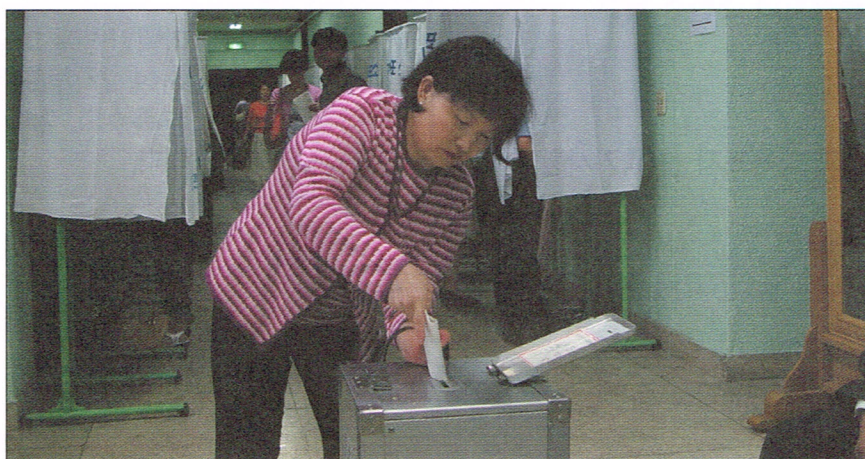


1차 권사3명만 당선, 오늘 2차투표 실시 송정현, 박영남, 박귀희 집사, 권사로 당선

지난 7월4일 주일, 교회를 섬길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의 임직자선출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오전 8시30분 공동의회의 개회선언 후 실시된 1차투표는 오후 1시30분까지 정신여고 1층 현관 로비에서 투표인 대조로 시작하여 질서 있게 5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비가오는 관계로 강당에서 투표장으로 이동하는데 교우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교적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여 투표를 하였다. 투표함이 1시30분부터는 4층 대회의실로 옮겨짐과 동시에 개표가 시작되었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교우들은 총 878명이었으며, 장로, 집사, 권사 순으로 개표가 진행되었다. 장로의 경우는 투표자의 2/3선이 넘어야 하고, 집사, 권사의 경우는 1/2선이 넘어야 당선이 된다.

즉 장로는 586표이상, 집사, 권사는 440표 이상이어야 당선확정선이 되었으며, 개표 결과 장로, 집사는 당선자가 없고, 권사는 송정현, 박영남, 박귀희 집사가 당선되었다. 이번주일에는 지난주에 이어 2차투표가 실시된다. 지난주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2차 투표가 실시된다. 2배수 공천의 원칙을 따라 장로는 10명, 집사는 20명, 권사는 14명이 후보로 공천되며, 1차투표의 득표순으로 게시되어 있다.



남포교회와 주님의교회, 당회간 식탁교제 지난주일 이루어져

지난주일 저녁6시에 남포교회에서 주님의교회 당회와 남포교회 당회의 식탁교제의 장이 열렸다.

지난 봄의 주님의교회 당회초청으로 교회식당에서 남포교회 당회와의 식탁교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한 답례 형식으로 이번에는 남포교회에서 주님의교회 당회를 초청하여 식탁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웃교회간의 신앙의 교제와 아울러, 교회를

이끌고 있는 당회원간의 만남은 앞으로 두 교회의 다양한 교류와 교제를 기대하게 하였으며, 이번 당회의 식탁교제는 이웃교회로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썩트네 6월달 생일파티

썩트네가 6월 27일 주일 6월 생일파티를 했다. 아이들의 케이크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흥분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다. 얼굴에 크림이 묻은 아이부터 재미있는 표정과 모습으로 이모, 삼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예배 후 7월 월례회시간도 가졌다. 썩트네는 2004 여름수련회를 8월 22일 하루의 일정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다. 그 전 7월 11일 교사수련회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이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이모, 삼촌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분이 바라시는 뜻을 알기위해 썩트네 식구들은 기도와 섬김으로 준비 중이다.



영아부 "하나님 나라와 디아스포라" 주제로 여름성경학교 준비

영아부는 "하나님의 나라와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사 41:8-10, 약1:1)이라는 주제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 중에 있다. 영아부 표어는 "영아부는 예수님의 민들레"이다. 영아부 여름성경학교는 8월15일에 교회 영아부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영아부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영아부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우리 친구들이 가는 그 곳에 꽃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통합아동부 레인보우

뛰어다니며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레인보우'



초등학교 1~6학년 어린이들이 찬양하며 게임을 통해 즐겁게 예수님을 배우는 통합아동부 레인보우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층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생동감 있는 통합아동부가 되자

는 의미로 '레인보우'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딱딱한 예배가 아닌, 어린이들이 함께 뛰며 몸으로 부딪칠 수 있는, 스스로 체험하는 예배로 구성했다. 모든 어린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시간이 바로 그 역할을 잘 해낸다. 한 예로, 몇 주 전에 했던 '릴레이 공 굴리기' 게임에서는, 커다란 풍선을 굴려 반환점을 돌아서 제일 빨리 오는 시합을 했었는데, 모든 어린이들이 서로 하겠다며 줄을 길게 섰고, 예배시간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 찬양시간에도 예전의 '따라하는 찬양' 시간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예배실을 뛰어다니며 힘차게 찬양하는 활동적인 예배시간이 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극과 다양한 인형극, 영상물을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능력은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매 주일마다 힘있게 선포하고 있다.

농어촌 교회 7월부터

5개 교회 추가지원

농어촌 봉사부 계획

농어촌 봉사부는 7월부터 미자립 농어촌 교회 5개 교회를 추가하여 총 29개 교회를 지원하게 된다. 주님의교회의 조그마한 지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하고 있다.

6월 중에는 태백 예수원, 포천 나눔의 집, 서하남의 야베스의 집을 방문하여 선물을 증정했다. (5면에서 계속)

1차투표 개표결과 및 2차 투표 공천후보명단

주님의교회에서 아래의 일정으로 임직자 피택을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주님의교회에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세례 및 입교인들은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일정 및 기준

- ◆ **공동의회** : 2004년 7월 4일(주일) 오전 8시 30분 개회
- ◆ **투표장소** : 정신여중고 본관 1층
- ◆ **피택인원** : 장로 5인, 집사 10인, 권사 10인
- ◆ **피택기준** : 장로 - 투표자의 2/3이상 득표
 집사, 권사 -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
- ◆ **후보자선정**
 - ① 1차투표시 : 당회공천자
 - ② 2차투표시 : 1차투표 결과 다득표자 순(특기사항 참조)

투표과정

- ① 1차투표 : 7월 4일(주일) 오전 8:30~오후 1:30
- ② 1차투표결과발표 : 7월 7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 ③ 2차투표 : 7월 11일(주일) 오전 8:30 ~ 오후 1:30
- ④ 2차투표결과발표 : 7월 14일(수) 수요성경공부 후

특기사항

1차투표 결과 피택인원에 미달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2차투표를 실시합니다. 단, 2차투표시 각 후보자는 부족수의 2배수를 선정합니다. 2차투표로 선거를 마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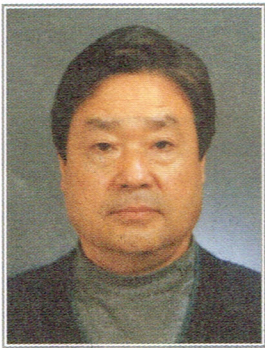
2004년 6월27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장로개표결과

당선자 없음, 2차후보는 다득표순



김 양 자 (468)
 • 44년생 / 91년 등록
 • 호스피스부장
 • 주방부



한 정 웅 (435)
 • 44년생 / 90년 등록
 • 119사역팀장
 • 안내부장



유 중 화 (425)
 • 53년생 / 90년 등록
 • 예배부장
 • 2부찬양대장



이 성 우A (380)
 • 46년생 / 88년 등록
 • 안내부장 (2001년도)
 • 장학부장



김 우 림 (369)
 • 47년생 / 95년 등록
 • 3부찬양대
 • 재정부장



최 상 인 (363)
 • 57년생 / 90년 등록
 • 청년2부장
 • 함글함글편집부장



한 득 현 (363)
 • 46년생 / 92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소년부장



하 승 락 (330)
 • 49년생 / 89년 등록
 • 해외선교부
 • 경조부장



김 성 구 (288)
 • 52년생 / 90년 등록
 • 경리부장
 • 재정부장



박 중 규 (234)
 • 48년생 / 89년 등록
 • 계수부장
 • 새가족사역팀

교육부, 수련회를 위한 교사연합기도회 열어

지난 주일(4일) 교육부에서는 3부 예배 후 초등부실에서 교회학교 교사 120 여명이 모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김보선 소년부 전도사의 인도로 시작된 찬양은 수련회를 앞둔 기도회답게 아이들과 함께 뛰고 흔들 수 있는 찬양으로 특히 중등부 교사 이상경권사의 울동이 모든 교사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김현령전도사는 설교를 통해 부모들의 수련회에 대한 관심도를 야구교실과 학원에 비교하며 지적하였는데 교



사이자 부모이기도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맡겨진 어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부담을 갖고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회개할 시간이 있었는가?' 하는 물음에 후회없도록 열심을 다하자

는 권면이기도 했다. 설교 후에 수련회의 모든 순서와 수련회 기간 동안의 안전을 함께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통해 그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새로 부임한 유영안(통합아동부. 어와나 담당), 서정(영아부)전도사 소개와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통합유아부(썩트네)의 김해련집사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 각 부서별로 기도회를 가졌다. 교사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가 예배실을 울렸으며 영아부 교사들의 단합된 섬김의 모습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족한 만나가 되어 모든 교사들을 살찌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로 인해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으면

88년 첫부임, 91년 목사안수, 영국유학 후 다시 주님의교회로

이인호 목사 인터뷰

주님의교회와의 첫만남의 추억

주님의교회에 88년 12월 부임하여 94년까지 있었다. 주님의교회에 전도사로 처음 부임해 91년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강남 YMCA에 있을 당시이다. 건물 무소유, 현금 50/50의 정신이 잘 이어져 오고 있어 기쁘다.

그 당시 주님의교회 교인은 100명이 안되었다. 가족적인 분위기로 구역예배가 활성화되어 밤 12시가 넘도록 모여 말씀과 교제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할렐루야팀이 결성되었다.

매년 주제가를 만들어 불렀는데, 작사는 이재철 목사님, 작곡은 제가 했다.

김경신 장로님, 김미자, 김영아 권사님, 그리고 김두련 집사님 등이 만든 울동을 성도들이 동그랗게 둘러서 따라하며 은혜를 나눴다.

부목사로 있으면서 2년 반 동안은 중국선교를 했는데 가정교회에서 리더자 훈련을 했었다.



영국에서 공부하시면서 인상깊었던 점
다시 오니 감회가 새롭다. 성남에 있는 독일 리벤젤 신학교에서 1학기 교수로 오게 되었다. 영국 버밍엄 대학에서 목회 리더십을 공부했고 석사(M.A), 박사(Ph.D)학위를 취득했다.

영국은 보수적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진보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 교회의 커뮤니티는 중요하다고 본다.

기독교 국가라 한국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신앙공동체의 모습을 적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영국교회는 삶 자체가

신앙공동체였다. 교회중심으로 삶을 영위하는, 서로가 신앙뿐 아니라 삶까지 같이 나누는 커뮤니티가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족

임승희 사모와 이세록(고2)와 이예록(고1) 두 아들이 있다.

앞으로 비전

한국교회 목회에 대해 배우고 싶다. 주님의교회가 아름답게 간직된 것을 바탕으로 지켜나가고 같이 비전을 나누면서 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들로 인해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문동학 목사님에게 배우고 꽃을 피울 수 있길 원한다.

임승희 사모의 소감

성도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어 꿈같다. 앞으로 사역을 할 때 너무 넘치지 않게, 그리고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의 은혜대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정신학원선교를 고민하는 교회와 학교의 만남의 자리 열려

정신학원 선교팀과 교목실이 지난 6일 화요일 3집회실에서 상반기 사역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모임은 성경어머니와 중등부 상담부팀 그리고 정신학원 교목실에서 애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열린 이번 모임은 정양재 안수집사의 인도로 시작되었으며 최규명 목사의 기도와 문동학 담임목사의 말씀 후 이어진 1학기 사역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사역을 하면서 부족하고 힘들었던 부분과 좋았던 점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문동학 담임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1부 모임을 마친 참가자들은 지하식당에서 조촐한 식사교제의 시간도 가졌다.



(1면에 이어서)

농어촌 봉사부

농어촌 교회 7월부터 5개 교회 추가지원

또한, 화천군 소재 교회의 중등부 학생들을 초청하여 여름수련회를 같이 갖기로 결의하고 지원키로 하였다. 지원 중인 엄천교회에서는 감사의 뜻으로 직접 재배한 감자를 주님의교회에 보내주시기도 하였다. 7월 7일 수요일예배 때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추도교회(경남통영에서 배로 2시간)의 오윤주 목사님(85세)께서 예배에 참석하셔서 수요일예배때 축도하여 주셨다.

중보기도 월례회

중보기도사역팀 3기 수료생 10여명이 함께 협력

6월 29일 11시 지하 영아부에서 중보기도사역팀 월례회가 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하다.

3기 수료생 10여명이 함께 자리한 곳에서 서로 인사 나누고 각 팀별로 모여서 담소도 하였다. 정영환 목사는 에스겔서 37:1~10로 말씀을 전했다. 절망적인 상황의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말라 죽어버린 상태와 우리나라의 모습을 연결시키고 이라크에서 김선일 씨의 참수는 한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죽었

다고 볼 수 있다. 죽은 나라가 하나님의 성령 부으심과 생기를 주심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가는 것에 소망이 생겼다. 먼저 이 나라 민족을 생명의 숨결로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길 바란다. 정영환 목사는 중보기도사역팀과 함께 기도를 했다. *마른 뼈 다가가 가득한 골짜기를 하나님의 성령이 군대에 임하실 때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생기를 얻고 많은 민족이 은혜의 군대

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이라크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땅에 전쟁 때문에 다시는 슬픔을 겪지 않도록 *파병을 하는 우리 군대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라크 국민들과 함께 새롭게 건설하는 사랑의 파병이 되도록 *가정과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살아있고 남들을 살피는 교회가 되도록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사역팀과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누었다.

권사개표결과 당선 3명, 2차후보는 다득표순

당 선 자



송 정 현 (495)

- 38년생 / 96년 등록
- 1부찬양대
- 주방부



박 영 남 (474)

- 53년생 / 91년 등록
- 경조부
- 주방부



박 귀 희 (441)

- 53년생 / 89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안내부

2차 후보



손 혜 선 (425)

- 53년생 / 92년 등록
- 경조부
- 2부찬양대



김 순 희A (417)

- 51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경조부



이 경 자B (403)

- 52년생 / 96년 등록
- 봉사부
- 주방부



고 유 자 (373)

- 53년생 / 89년 등록
- 선교자료부장
- 2부찬양대



최 재 경A (367)

- 59년생 / 92년 등록
- 통합아동부장
- 경조부



신 영 숙 (353)

- 56년생 / 94년 등록
- 새가족사역팀
- 교육지원부장



최 정 윤A (348)

- 53년생 / 94년 등록
- 중보기도사역팀
- 유년부



박 서 연A (345)

- 54년생 / 92년 등록
- 2부찬양대
- 호스피스부



이 현 숙C (344)

- 55년생 / 97년 등록
- 주방부
- 주방부



김 설 희 (327)

- 54년생 / 93년 등록
- 2부찬양대
- 권찰



백 설 희 (325)

- 57년생 / 90년 등록
- 호스피스부
- 경조부



이 희 순A (294)

- 53년생 / 92년 등록
- 소년부
- 드라마부



김 경 미A (276)

- 56년생 / 92년 등록
- 자원봉사연결팀
- 3부 찬양대



우 진 선 (259)

- 56년생 / 97년 등록
- 중등부
- 상담부

집사개표결과

당선자 없음, 2차후보는 다득표순



김 기 용 (434)

- 46년생 / 91년 등록
- 차량부
- 차량부



박 대 길 (418)

- 51년생 / 96년 등록
- 중등부장
- 해외선교부



김 구 중 (400)

- 52년생 / 91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이 용 수 (397)

- 59년생 / 90년 등록
- 유소년축구클럽
- 구역장



김 흥 용 (393)

- 47년생 / 93년 등록
- 홍보출판부장
- 안내부



김 동 근A (385)

- 52년생 / 94년 등록
- 강남병원선교팀
- 2부찬양대



이 상 윤A (381)

- 52년생 / 94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심 동 욱 (374)

- 52년생 / 92년 등록
- 안내부
- 차량부



김 기 성 (373)

- 46년생 / 95년 등록
- 봉사부
- 구역장



조 영 룰 (358)

- 55년생 / 93년 등록
- 예배부
- 차량부



서 준 규 (358)

- 52년생 / 96년 등록
- 의료선교부장
- 2부찬양대



이 원 철 (348)

- 52년생 / 89년 등록
- 주방부
- 예배부



동 현 수 (310)

- 56년생 / 95년 등록
- 청년1부장
- 고등부장



성 하 홍 (293)

- 51년생 / 95년 등록
- 구역장
- 봉사부



조 명 국 (286)

- 67년생 / 89년 등록
- 도서부
- 장애인부



최 성 진 (249)

- 56년생 / 99년 등록
- 구역장
- 2부찬양대



이 진 원 (247)

- 53년생 / 92년 등록
- 외국인선교부장
- 구역장



이 동 희A (224)

- 57년생 / 93년 등록
- 수요찬양팀장
- 도시선교부



윤 성 진 (218)

- 58년생 / 90년 등록
- 구역장
- 소년부장



유 중 열 (196)

- 58년생 / 98년 등록
- 구역장
- 방송부

3교구, 양평 관광농원으로



2004년 7월 16일(금)~17일(토), 1박2일간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양평자연관광농원에서 "우리 가운데 계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주제로 실시된다. 3교구는 강북지역과 구리, 남양주, 덕소를 중심으로 강원도까지 포괄하여 인원이 구성되어 있다.

구성원들을 분류해보면, 전국구와 지역구를 포함한 부부구역과 여성구역 그리고 60세이상의 여성들로 구성된 안나구역이 주된 구성원이 된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찬양과 예배, 캠프파이어, 그리고 나눔과 어우러짐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16일 저녁의 캠프파이어와 17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공동체 한마당은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확인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17일 오후부터는 참된 공동체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건강한 의사소통을 위한 특별 코스로 마련했다. 조별로 함께 참여하여 실습도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새로운 구역공동체, 가정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나이, 성별, 신체조건의 벽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7교구, 진광전원교회로

7교구가 7월 16일(금)부터 17일(토)까지 1박 2일로 교구 수련회를 가진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리 (광릉수목원 인근)에 위치한 진광전원교회에서 열리게 된다. 특별히 이 교회를 교구 식구 중 정원영 집사가 설계하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고, 교구 공동체와 더불어 영적인 쉼과 재충전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오후 3시 교회에서 출발하여 다음날 오후까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 7교구는 그동안 잘 몰랐던 교우들과 만나 서로 친교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사모하고 있다. 모쪼록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교우들도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초다지기' 양육과목 중강

믿음의 기초가 더욱 확고해지기를

화요일 그리스도인의 기초 다지기 반은 김현령 전도사와 함께 소수정예로 14번의 모임을 가졌다. 복음 확인 시리즈 1,2권을 교재로 사용하면서 전도사님의 보충교재와 질의 응답으로 소그룹의 장점을 잘 살렸던 공부였다. 처음에 교재를 소개받고 1과를 읽으며 좀 특이한 교재라고 생각했다. 이제까지 믿고 알던 것도 다시 짚어보고 흔들어서 더욱 깊이 뿌리내리게 한 "기초 다지기" 과정이었다. 지금까지의 습관화된 시선들을 바꾸어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의문들, 그동안 당연시하고 질문조차 하지 않았던 것들도 고민해 보는 시간들이었다. 더욱 좋았던 것은 10명 미만의 모임

이어서 어떠한 질문이나 느낀점을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앞에서 치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곳에서조차 내 옆에 계시며 함께 통과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지막 강의에서 전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되새겨본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뛰기를 할 때처럼 신뢰를 가지고 손을 놓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사람과 그 아래에서 언제나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붙드시는 주님의 비유.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가 더욱 확고해지는 과정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말씀 묵상 속에서 언제나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말씀 묵상반의 마지막 수업은 참석한 성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그 동

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과 생활 속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서로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가졌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실상 날마다 말씀 읽기가 어려웠지만 말씀묵상 클래스를 시작한 후 날마다 말씀 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 묵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꺼내주신 자신의 죄책감에 괴로웠지만, 이제 마칠 즈임에는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 속에서 모든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 주심을 체험했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클래스를 통하여 깨달은 말씀묵상의 습관이 지속되길 바란다.

5교구! 십자수에서 만나요

강남부터 분당, 용인까지 흩어져 살던 5교구 가족,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오는 7월 16일(금)-17일(토) 1박2일간 십자수기도원(양평군 서종면 정배리)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곳은 서울 근교에서 보기

드문 깊고 수려한 경관과 기도원을 감싸고 흐르는 물과 물이 만나 십자(十)의 계곡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쾌적한 숙소와 넓은 활동공간(사진)을 통해 구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쉼과 공동체안에서의 영적성숙을 이루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한편, 자녀도 함께 하는 프로그램과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물놀이와 물고기잡기, 자연활동, 지점토공예품만들기 등)이 준비되므로 자녀들도 함께 참여하면 더욱 좋겠다.



[교회 처음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교회생활을 안내합니다

1. 주일 점심 식사 안내

매주 일 식당(지하 1층)에 오시면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국수를 드실 수 있습니다. 국수대금(500원)은 구제에 쓰입니다. 잊지 마세요.

2. 주차 안내

주일 아침 1부 예배 시작(7시 30분)부터 3부 예배 마칠 때(12시 30분)까지 주차 안내 위원들이 주차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여중고 운동장을 주일에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천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도서실(5층) 안내

5층에는 도서실이 있습니다. 3000권의 신앙서적과 30여명이 동시에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임과 예배 사이에 시간이 남아 무료할 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개관시간은 주일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4시까지, 평일은 (월요일 휴관) 매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입니다.

도서검색 및 구입요청 : cafe.daum.net / PCLBOOKS

4. 설만한 물가(1층) 이용안내

1층 로비에는 성도들이 차를 마시며 교제하며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교실이 있습니다. 신앙서적, 주일설교테이프, 그리고 맛있는 차와 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월~토요일 오전10시~오후6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교회에서 처음 드리는 여러분의 예배와 자녀들의 교회학교 모임과 식당 및 주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일 예배

예배	시간	장소
1부 예배	오전 7시 30분 ~ 8시 30분	2층 대예배실
2부 예배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2층 대예배실
3부 예배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2층 대예배실
4부 예배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대예배실

주중 정기 모임

예배	시간	장소
새벽기도회	새벽 5시 30분 ~ 6시	1층 소예배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 8시 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목요모임	저녁 7시30분 ~ 9시30분	지하1층 중예배실
구역모임	저녁 시간 구역별로 자유	지정된 구역원 가정

교회학교 예배 및 모임

자녀와 함께 오신 부모님은 자녀의 연령과 모임장소를 확인하여 자녀를 교회학교에 맡기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부서	시간	장소	대상
영아부	11:30-12:30	영아부실(지하 1층)	생후~24개월
유아부	11:30-12:30	유아부실(1층)	25개월~48개월(4~5세)
썩트네(통합유아부)	09:30-10:30	유아부실(1층)	학령기전(7세이하)
유치부	11:30-12:30	유치부실(지하 1층)	49개월~학령기전(6~7세)
유년부	11:30-12:30	유년부실(1층)	초등 1~2학년
초등부	11:30-12:30	초등부실(3층)	초등 3~4학년
소년부	11:30-12:30	소년부실(3층)	초등 5~6학년
레인보우(통합아동부)	09:30-10:30	유년부실(1층)	초등 1~6학년
중등부	09:30-10:30	소예배실(1층)	중학생
고등부	09:30-10:30	중예배실(지하 1층)	고등학생